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65/1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0학년도 6월 31~35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쪼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점을 찍듯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A]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 홍인우, 관동록 -

*요령: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 [진혈터]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느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눅홀시고 망고디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느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ㅌ니 또 잇는가.
 [기집터] 고터 올라 동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녀녀히 혀여흐니,
 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뭉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문들고쟈.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눅뎡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넙거나 넙은 텃하 엇찌흐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정철, 관동별곡 -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정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안민영-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